



예수 성심 성월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Email : stfrancis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cs@gmail.com

[제1독서] 지혜 1,13-15;2,23-24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과 13(◎2과 참조)



(후렴) 주님, 저를 구하셨 으 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 이 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제 2 독서] 2 코린 8,7.9.13-15
 [복음환호송] 2티모 1,10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음] 마르코 5,21-43(또는5,21-24.35-43)

[성가안내]

- 입당성가 [55] 착하신 목자
- 봉헌성가 [332] 봉헌
- 성체성가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 파견성가 [202] 구세주의 성심이어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가게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 연미사 | 봉헌 |
|----------------------------------------------------------------------------------------------------------------------------------------------------------------------------------|------------------------------------------------------------------------------------------------------------------------|
| 이영유, 이태묘 전마사자 카타리나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홍정희 마리아 배재철 안토니 | 이상홍 스테파노 김종화 필립보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김영숙 카타리나 김영숙 카타리나 |
| 백미사 | 봉헌 |
| 이영애 레지나, 이정진 안토니오 김가롤로 신부, 박티모테아 수녀 이정주 소화 데레사 김루이 세레자 요한 손종애 안젤라, 김순자 엘리사벳 유요국 (치유 위하여) 이재오 클레멘스, 이진자 세실리아 이병국 요한, 이종환 토마스, 김옥지 아가다, 전마지 마가렛 이승아 데레사 | 이영애 레지나 가족 이영애 레지나 가족 윤요한, 루시아 박신영 안나 민덕미 안젤라 양미숙 마리아 은총의 샘 꾸리아 은총의 샘 꾸리아 은총의 샘 꾸리아 최진영 수산나 |

| 주일 | 해설 | 1독서 | 2독서 | 보편지향기도 | 성찬봉사 |
|--------|-------------|--------------|-------------|-------------|-------------|
| 6월 27일 | 이지훈 아네스 | 정은철 프란치스코 | 조규진 아네스 | 조규진 아네스 | 양미숙 마리아 |
| 7월 4일 | 박기웅 사도요한 | 박기목 알버트 | 이경자 율리안나 | 이경자 율리안나 | 김종선 비비안나 |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 사목협의회 월례 회의

일 시 : 2021. 6. 27
시 간 : 주일 미사 후
장 소 : 프란치스 룸 (지하 1층)

●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추진 위원회 월례모임

일 시 : 2021. 6. 27. 사목 협의회 이후
장 소 : 2층 교리실 (사무실 옆방)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 풍물패 가칭 <신명>
풍물패 단원을 모집합니다."

팽과리, 징, 북, 장구를 배우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박 알버트 부회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46-201-0175)** 일시와 장소는 회원들이 모이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통을 이어가며 본당 신자들의 화합과 하나 되는 것 외에도 **선교의 목적과 한국을 알리는 기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신자, 미국인등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첫 모임 : 2021. 6. 27
장 소 : 2층 교리실
준비물 : 없음
시 간 : 14:00 ~ 16:00

● 제 38차 지구 울뜨레야 행사

일 시 : 2021. 7. 4
시 간 : 오후 3시 30분
장 소 : 메이플우드 성당
문 의 : 둘뜨레아 간사 (929-444-1411)

● 뉴튼 수도원에서 주방 직원을 찾습니다.

장 소 : 뉴튼 수도원 (289 US Highway 206, Newton, NJ 07860)
지원자격 : 미국에서 일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 공 : 숙소, 주급 및 기타
연락처 : 973-670-9839 유 마티아 수사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중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세요!
- 일요일 9:15 am (한인공동체)

[성사 안내]

| | |
|---------------|----------------------------------------------------|
| 주일미사 | 오전 09:15 윗 성당 |
| 청년미사 |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
| 고해성사 |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
| 혼인성사 | 당분간 중단 |
| 유아세례 | 당분간 중단 |
| 예비자 및 견진교리 |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 | | |
|-------------------|-----------------------------|--------------|
| 울뜨레아 | 1 st 주일 11:00 am | 교육관 4 |
| 학부모회 | 1 st 주일 11:00 am | 교육관 3 |
| 요셉회 | 2 nd 주일 11:00 am | Conf. Rm(2F) |
| 성모회 | 2 nd 주일 11:00 am | 교육관 4 |
| 연령회 | 2 nd 주일 11:00 am | Lower Church |
| 꾸리아 | 3 rd 주일 11:00 am | Lower Church |
| 양업회 | 3 rd 주일 11:00 am | Conf. Rm(2F) |
| 성령기도회 | 매주 화 06:00pm~07:30pm | Conf. Rm(2F) |
| 예수성가정회 (FYMNY) | 4th 주일 11:00am | Francis Room |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전마지(마가렛) | 이재호(클레멘트) |
|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 김동희(헬레나) |
| 이정주(소화테레사) | 김용기(요셉) |
| 정창동(폴리나) | 고종호(마태오) |
| 지군자(스테파니) | 홍봉운(바오로) |
|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 노의선 |

[2021년 6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혼인의 아름다움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도움으로 포용과 신의와 인내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ClaraGowns@gmail.com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오늘의 복음 묵상

(마르코 5,21-43(또는5,21-24.35-43))

열두 해 동안 하혈하는 여자, 열두 살 어린 소녀. 열둘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난치병을 앓았고 다른 한 명은 죽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를 마주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체험 했다는 교집합이 생깁니다. 물론 한 명은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께 손을 댔고, 다른 한 명은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손이 잡혔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닮은 듯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께 붙잡히기도 합니다. 술한 고생을 하고 많은 의사에게 가진 것을 다 쏟아부으며 열 두 해를 보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픈 딸을 고쳐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집으로 모시고자 하였지만, 집으로 가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예수님을 더 수고스럽게 할 필요학 없었던 회당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비록 다른 모습이었지만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처지라는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만났습니다. 그러한 이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믿은은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적당한 인간적 사고 안에서 만들어진 타당성의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는 무모하게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분께 손을 내밀기도 하면서 그분께서 건네시는 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 박 형순 바오로 신부 -

“기적의 배, 1950 성탄의 기적!”

▶ 마리너스 라 루 수사(1914-2001)의 시복이 2021 미국 주교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분은 뉴튼의 St. Paul Abbey 소속이었던 “기적의 배, 1950년 성탄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분으로 베네딕도회 수도자 살았던 분이시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22일 흥남항에서 출발한 7600톤급 화물선 메레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으로 12월 25일 성탄절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하는 3일동안 1만 4000명의 피난민을 태워 목숨을 구한 인물이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오히려 배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탄생해 ‘기적의 배’ 또는 ‘1950년 성탄의 기적’이라 부른다. 이들이 후손들은 현재 1백만명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이 항해 후 선장을 그만두고 미국 뉴저지에 있는 성 베네딕도회 뉴튼 수도원에 입회했다. 수도명은 마리너스(사진)였다. 그는 2001년 10월 14일 선종할 때까지 47년간 수도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수도생활에 전념했다. 미국 해양선교단체 ‘바다의 사도’의 시복시성 요청을 뉴튼수도원이 소속된 뉴저지 패터슨교구 교구장 아서 요셉 세라텔리 주교가 수락하면서 시작됐다. 마리너스 수사는 수도원 입회 전 선원시절 ‘바다의 사도’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생전 “피난민들 가운데서 하느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배에 태울 수 있었고 1만 4000명의 목숨을 구하면서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수도원에 입회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마리너스 수사의 인간에 대한 사랑,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모범적으로 평가돼 시복시성 절차를 밟게 됐다. 지금 예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메레디스 빅토리호는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배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한반도 평화기원, 밤9시 주모경 바치기를 기억하세요^^